

2027  
특강  
문학

##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산문 04 | 반씨전 직전 보강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것만은 알고 시험장에 가자!

### AI 직전 보강



선생님, 이번에 공부할 「반씨전」은 다른 가정 소설들과 어떤 점이 다른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야! 보통의 가정 소설은 처와 첩의 갈등을 다루지만, 이 작품은 특이하게도 '여성 동서 간의 시기와 갈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단다.



아, 형제들의 아내끼리 싸우는 거군요! 그런데 지문을 보니 단순히 집안싸움으로 끝나지 않는 것 같아요.

맞아. 채 씨가 자신의 친정 아버지인 좌승상 채영의 권세를 빌려 반 씨의 가족을 모함하거든. 이렇게 가정 내의 갈등이 '가문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확대되는 게 이 소설의 큰 특징이야.



와, 스케일이 엄청 커지네요! 그런데 선생님, 중간에 나오는 초월적 존재들이 돕는다는 부분이 사실 잘 이해가 안 돼요. 죽은 시어머니가 어떻게 머느리를 돕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작품의 '전기적 요소'란다. 죽은 양 부인이 꿈에 나타나 위협을 알리거나, 산신령에게 부탁해 반 씨 모자에게 신비한 음식을 주어 기력을 회복시키기도 하지.



아하, 선인이 지닌 도덕적 정당성이 하늘의 도움까지 이끌어내는 거군요!

정확해! 그리고 글 중간중간 '차설'이나 '차시' 같은 말들이 자주 나오는데, 이건 고전 소설에서 장면을 전환하거나 다른 장소의 일을 설명할 때 쓰는 상투적인 표현들이니 꼭 기억해 두렴.





네! 서술자가 갑자기 끼어들어 “은권이 조정에 따를 이 없더라”처럼 인물을 평가하는 ‘편집자적 논평’도 주의 깊게 봐야겠어요.

오, 예리하네! 천자가 위윤을 믿으면서도 채영의 기세에 놀려 유배를 보내는 나약한 모습도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점이란다.



악인이 결국 벌을 받고 주인공 위홍이 출세하는 권선징악의 결말까지, 이제 전체적인 흐름이 잡혀요!

좋아, 자신감이 붙었구나! 「반씨전」에서는 동서 간 갈등의 원인, 전기적 요소의 기능, 그리고 가문 간 대립으로의 확장 과정과 같은 문제가 출제될 수 있으니 꼼꼼히 공부해 두렴.



2027  
특강  
문학

##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산문 04 | 반씨전 지문 분석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지문 분석

[앞부분 줄거리] 위윤, 위진, 위준 삼 형제는 각각 반 씨, 채 씨, 맹 씨를 아내로 맞이한다. 만며느리 반 씨는 어질지만, 두 동서는 반 씨를 시기하고 모함한다. 시어머니 양 씨는 반 씨의 진심을 알고, 두 며느리를 꾸짖는다.

[채 씨가 분함을 참지 못하여 양 부인에게 하직하고 맹 씨와 더불어 서로 이별할새, 채 씨 왈,  
“이제는 그대도 외로운지라. 반 씨의 참소를 어찌 견디리오. 필경은 잔명을 보전치 못할 것이니, 빨리 본부로 돌아가 있음이 가하리로다.” ]([ ]: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반 씨를 모함하며 맹 씨에게 친절으로 돌아갈 것을 중용하는 적반하장의 태도. 인물에 대한 이해를 묻는 문제에서 “채 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반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맹 씨 탄식 대 왈,  
“첩도 미상불 그러하올 줄 아오되. 존고께서 아직 있으라 하시니 임의로 못 하거니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까.” ]([ ]: 채 씨의 말에 동조하며 반 씨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는 맹 씨의 모습)  
하고, 서로 눈물을 뿌려 이별하고 돌아가니라.

**차설**(화제를 돌려 다른 이야기를 시작할 때 쓰는 고전 소설의 상투적 어휘. 서술상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차설, ‘차시’와 같은 고전 소설의 상투적 어휘를 사용하여 장면을 전환하고 새로운 사건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채 씨는 본부에 돌아와 부모 슬하에 배알하고 그간 존후를 묻자오니, 부모와 집안 전체가 대경하여 그 연고를 물으니, 채 씨가 눈물을 머금어 양 씨가 반 씨의 참소를 듣고 무죄히 내쳐짐을 이르니, 채영 부부와 부자가 절치부심하여 설분하기를 꾀하더라.

**차시**(동시간대 다른 장소의 일을 서술할 때 쓰는 고전 소설의 상투적 어휘)에 **채 씨의 부친은 좌승상 채영이니, 위엄이 당당하고 권세가 일세에 으뜸일러라. 일찍 아들 일곱이 있어 다 입조하여 명망이 조야에 진동하고 천자가 승상의 부자를 총애하사 은권이 조정에 따를 이 없더라.**(서술자가 주관적인 판단을 통해 인물의 위세를 강조하는 편집자적 논평이 나타남. 서술 방식을 묻는 문제에서 “서술자가 ‘은권이 조정에 따를 이 없더라’와 같이 주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편집자적 논평을 통해 채영의 위세를 강조하고 있다.”와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차시에 채 승상이 딸의 말을 듣고 대로 왈,  
“내 사람을 살피지 못하여 교양이 없어 말과 행동이 서투르고 무식한 집에 딸을 출가시켰다가 문호에 욕이 미치게 하니 어찌 분한치 아니하리오.”

하고, 이에 천자로 더불어 의논하고 표를 올려 반옥과 위윤의 죄상을 주달하니, 차시 **위 시랑이 경사에 와 벼슬에 나아가매 청렴 정직하여 직분을 수행함에 일호라도 구차함이 없으니,**(서술자가 인물의 성격을 직접 제시하고 있음.) 상이 위윤의 재주를 기특히 여기사 벼슬을 돋우어 예부 상서를 시키시니, 위 상서가 천은에 숙사하고 돌아왔으나, 고향 소식을 알지 못하여 아침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니, 문득 반 씨의 종형 직금랑 반희가 궐중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길에 위 상서를 보고 예필 후 이르되,

“금일 간에 채영의 아들 채원의 상소를 보니, 형의 허물과 숙부의 죄과를 고달하되, ‘숙부가 병부 상서로 성총을 가리어 상벌이 분명치 못하니, 이는 기군망상’한 죄인이라. 민심을 산란케 하니, **위윤과 반옥을 함께 참하여 민심을 안정케 하여지이다.**(작품 감상 내용을 묻는 문제에서 “채원이 천자에게 위윤과 반옥을 ‘기군망상’한 죄인이라며 상소를 올리는 것은 가정 내의 갈등이 공적 영역으로 확대된 결과로군.”과 같은 옳은 선지가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하였으니,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일이 있나니이까.”

2027  
특강  
문학

2027 특강 국어 문학 2. 적용학습 고전산문 04 | 반씨전 기출 문제

이 서적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됩니다. 본 자료의 무단 배포, 도용 시,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 줄거리] 위윤, 위진, 위준 삼 형제는 각각 반 씨, 채 씨, 맹 씨를 아내로 맞이한다. 만며느리 반 씨는 어질지만, 두 동서는 반 씨를 시기하고 모함한다. 시어머니 양 씨는 반 씨의 진심을 알고, 두 며느리를 꾸짖는다.

채 씨가 분함을 참지 못하여 양 부인에게 하직하고 맹 씨와 더불어 서로 이별할새,

채 씨 왈,

“이제는 그대도 외로운지라. 반 씨의 참소를 [A] 어찌 견디리오. 필경은 잔명을 보전치 못할 것이니, 빨리 본부로 돌아가 있음이 가하리로다.”

맹 씨 탄식 대 왈,

“첩도 미상불 그러하올 줄 아오되. 존고께서 아직 있으라 하시니 임의로 못 하거니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꼬.”

하고, 서로 눈물을 뿌려 이별하고 돌아가니라.

차설, 채 씨는 본부에 돌아와 부모 슬하에 배알하고 그간 존후를 묻자오니, 부모와 집안 전체가 대경하여 그 연고를 물으니, 채 씨가 눈물을 머금어 양 씨가 반 씨의 참소를 듣고 무죄히 내쳐짐을 이르니, 채영 부부와 부자가 절치부심하여 실분하기를 꾀하더라.

차시에 채 씨의 부친은 좌승상 채영이니, 위엄이 당당하고 권세가 일세에 으뜸일러라. 일찍 아들 일곱이 있어 다 입조하여 명망이 조야에 진동하고 천자가 승상의 부자를 총애하사 은권이 조정에 따를 이 없더라.

차시에 채 승상이 딸의 말을 듣고 대로 왈,

“내 사람을 살피지 못하여 교양이 없어 말과 행동이 서투르고 무식한 집에 딸을 출가시켰다가 문호에 욕이 미치게 하니 어찌 분한치 아니하리오.”

하고, 이에 천자로 더불어 의논하고 표를 올려 반옥과 위윤의 죄상을 주달하니, 차시 위 시랑이 경사

에 와 벼슬에 나아가매 청렴 정직하여 직분을 수행함에 일호라도 구차함이 없으니, 상이 위윤의 재주를 기특히 여기사 벼슬을 돋우어 예부 상서를 시키시니, 위 상서가 천은에 숙사하고 돌아왔으나, 고향 소식을 알지 못하여 아침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니, 문득 반 씨의 종형 직금량 반희가 궤중에 들어갔다 나오는 길에 위 상서를 보고 예필 후 이르되,

“금일 간에 채영의 아들 채원의 상소를 보니, 형의 허물과 숙부의 죄과를 고달하되, ‘숙부가 병부 상서로 성총을 가리어 상벌이 분명치 못하니, 이는 기군 망상’한 죄인이라. 민심을 산란케 하니, 위윤과 반옥을 함께 참하여 민심을 안정케 하여지이다.’ 하였으니,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일이 있나니이까.”

상서가 양천 탄 왈,

“이는 간인이 있어 모해함이라. 그러나 어찌 기군이라 하시고. 이제 그저 있지 못하리니 궤하에 대죄하리라.”

희 왈, / “들으니 형이 채가와 불화가 있다 하더라.”

하거늘, 상서가 탄식하고 궤하에 나아가니, 반희가 참연하여 하더라.

상이 상소를 보시고 대로 왈,

“짐이 어찌 사람을 그릇 쓰리오. 위윤은 청렴 강직하고 반옥은 충실의 후예라 짐이 수족을 삼았더니, 이제 참연이 여차하니 가장 통해하도다.”

채영이 주 왈,

“위윤과 반옥은 일대 소인이라. 두렵건데 후환이 있을까하나이다.”

제신이 다 채영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상고묵묵이라. 상이 위·반 이 인을 아끼시나 조신 중 일인도 변백치 못하는지라, 할 수 없어 위윤은 장사에 원찬하고, 반옥은 강동에 정배하시고 탄식해 마지아니하더라.

(중략)

화설, 채 씨는 흥이 스승을 얻어 글을 배운다 하되, 기이한 선관이 밤마다 임한다 함을 듣고 위진에게 이 말을 일러 왈,

“반 씨가 삼 년이나 나오지 아니함을 괴이히 알았더니, 원래 이같이 음일한 행사가 낭자하니 이제 바빠 처치하소서.”

위진이 대로하여 이날 밤에 창두 이십여 인을 보내어 반 씨 모자를 죽이려 할새, 이에 분부 왈,

“너희는 반 씨의 여막에 가 불을 놓고 반 씨 모자를 불의에 들이치면 마땅히 중상하리라.”

하니, 창두가 저마다 용약하여 일시에 가니라.

차시에 반 씨는 정히 혼미하여 잠깐 졸더니, 비몽사몽간에 일위 부인이 대호 왈,

“미구에 액이 당도하였거늘 무슨 잠을 자느뇨.”

반 씨 놀라 깨달으니 침상일몽이라. 또 들으니 또 이르되,

“어서 피하라. 만일 지체할진대 가히 면치 못하리라.”

반 씨 대경하여 급히 흥을 불러 이 말을 이르니. 흥이 놀라 왈,

“이는 반드시 왕모의 혼령의 가르침이라. 바빠 피하사이다.”

하고, 모친을 붙들여 한뼘을 넘어가 부인을 바위 틈에 앉히고 뒤편에 올라 바라보니, 벌써 집에 불이 일어나고 무수한 사람이 두루 다니며 요란하거늘, 급히 돌아와 모친께 고 왈,

“만일 도적 같으면 우리를 찾을 바 없거니와, 우리를 방문하여 찾아보니 매우 의심스러운지라. 이곳에 있지 못할지니 멀리 가사이다.”

하고, 모친을 인도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천지가 아득하여 갈 길이 묘연하고 기력이 점점 쇠진하니 모자가 서로 붙들고 통곡하더라.

이때 문득 한 노인이 이르러 문 왈,

“그대는 어떤 사람이관대 적막한 산중에서 이같이 방황하며 슬퍼하느뇨.”

흥이 대 왈, / “깊은 밤에 길을 잃고 정신이 아득하여 우나이다. 원컨대 대인은 길을 인도하소서.”

노인이 웃어 왈, / “공자가 과도히 놀랐도다.”

[B] 하고, 인하여 소매 안으로부터 줄 같은 것들을 내어 주며 왈, / “모자가 하나씩 나눠 먹으라.”

하니, 흥의 모자가 받아먹으며 문득 정신이 쇠락한지라. / 정히 사례코자 하더니, 노인 왈,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더니, 양 부인의 청을 듣고 그대 모자를 구하노라.”

하고 문득 간데없거늘, 흥이 공중을 우러러 무수히 사례하고 모친을 모셔 양강에 이르니. 부인이 통곡하여 왈, / “친정이 비록 서로 허물없이 가깝게 지내나 이 거동으로 어찌 촌중에 들어가리오.”

흥이 위로하며 모셔 외가 반부를 찾아 나아가니, 유 부인이 여아를 보고 크게 반기며 흥이 이같이 장성하여 수미함을 보고 반기는 중, 반 공과 위 상서가 원찬됨이 슬퍼 모녀가 서로 위로하더라.

- 작자 미상, 「반씨전」

### 1.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 간의 대화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요약적으로 제시하며 긴장감을 해소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특정 인물의 처지에 대한 안타까움과 상황의 부정함을 직접 드러내고 있다.
- ③ ‘차설’, ‘차시’와 같은 고전 소설의 상투적 어휘를 사용하여 장면을 전환하고 새로운 사건의 단초를 제시하고 있다.
- ④ 공간의 이동에 따른 서술자의 시선 변화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인식의 전환 과정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⑤ 비현실적인 소재와 전기적 요소를 활용하여 인물이 겪는 내적 갈등이 해소되는 과정을 필연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2. 윗글의 인물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채 씨는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보다 반 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
- ② 맹 씨는 채 씨의 의견에 동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의 권위를 의식하며 조심스러워하고 있다.
- ③ 채영은 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상대 가문을 정치적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
- ④ 천자는 위윤과 반옥의 뒤편이를 의심하면서 그들을 유배 보내고 있다.
- ⑤ 위흥은 위기 상황에서 조력자의 도움을 양 부인의 덕택으로 생각하며 감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3.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반씨전」은 가부장제 사회에서 여성 동서간의 갈등이 가문 간의 정치적 대립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악인은 자신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 ‘음모 모티프’를 활용하며, 이 과정에서 천자와 조정 관리 등 공적 영역의 인물들이 악인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 선인은 이러한 부당한 위기 속에서 초월적 존재의 도움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는데, 이는 선인이 지닌 도덕적 정당성이 사후 세계나 신령에게도 인정받고 있음을 의미한다.

- ① 채 씨가 부친에게 양 씨의 처사를 ‘반 씨의 참소’ 때문이라고 거짓으로 알리는 것은 음모 모티프의 시작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채원이 천자에게 위윤과 반육을 ‘기군망상’한 죄인이라며 상소를 올리는 것은 가정 내의 갈등이 공적 영역으로 확대된 결과로군.
- ③ 제신들이 채영의 권세가 두려워 ‘상고목록’하는 모습은 악인의 위세로 인해 공적인 정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는 조정을 보여주는군.
- ④ 위진이 창두들을 보내 반 씨 모자를 죽이려 하는 것은 악인이 자신의 악행을 은폐하기 위해 가족 공동체의 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로군.
- ⑤ 반 씨가 꿈에서 ‘일위 부인’의 경고를 듣고 위기를 모면하는 것은 반 씨가 지닌 도덕적 정당성이 초월적 존재를 통해 보호받고 있음을 뜻하는군.

4. [A]와 [B]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상대방의 앞날을 진심으로 걱정하며 제안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 ② [B]는 위기에 처한 인물을 안심시키며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공하는 초월적 존재의 자비로운 면모를 보여준다.
- ③ [A]는 상대방과의 유대감을 강조하여 공동의 적을 설정하고 있고, [B]는 인물 간의 위계 관계를 활용하여 명령을 내리고 있다.

- ④ [A]와 [B] 모두 인물의 미래에 닥칠 불행을 예고하며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⑤ [A]는 인물의 과거 행적을 비판하며 결단력을 촉구하고 있고, [B]는 인물의 현재 심리 상태를 부정하며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5. 윗글의 ‘줄 같은 것’과 <보기>의 ‘부적’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양 부인이 반 씨의 결백함을 알고 난 뒤, 채 씨와 맹 씨의 간계로부터 반 씨를 보호하기 위해 도사에게 받은 ‘부적’을 반 씨의 방문 위에 붙여 두었다. 그날 밤 채 씨가 보낸 자객이 반 씨를 해치려 방에 들어가려 하자, 부적에서 갑자기 금색 광채가 뿜어져 나와 자객의 눈을 멀게 하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게 하였다.

- ① ‘줄 같은 것’과 ‘부적’은 모두 악인의 물리적인 공격을 직접적으로 되받아치는 방어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 ② ‘줄 같은 것’은 인물의 심신을 회복시키는 효능을 지닌 반면, ‘부적’은 위협 요소로부터 인물을 물리적으로 격리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 ③ ‘줄 같은 것’은 사후 세계의 인물이 보낸 선물인 반면, ‘부적’은 지상의 인물이 직접 제작하여 전달한 신물이다.
- ④ ‘줄 같은 것’은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는 상징적 소재이나, ‘부적’은 사건을 파국으로 이끄는 비극적 소재이다.
- ⑤ ‘줄 같은 것’과 ‘부적’은 모두 인물이 지닌 비범한 능력을 외부로 표출하게 만드는 매개체로서 기능한다.

**6. 윗글의 작품 전체를 고려할 때 작품에 나타난 갈등 양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의 고부 갈등이 작품 전체의 핵심 갈등을 형성하며 비극적 결말을 예고하고 있다.
- ② 악인인 채 씨가 개과천선하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으로써 가문의 갈등이 극적으로 해소되는 구조를 취하고 있다.
- ③ 정치적 권력을 가진 세력이 도덕적으로 우월한 가문을 억압하는 과정을 통해 당대 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하고 있다.
- ④ 형제간의 재산 다툼이 주요 원인이 되어 발생한 내분이 가문의 몰락과 인물들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이어지고 있다.
- ⑤ 동일한 신분을 가진 여성들 사이의 우월감이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심리적 갈등이 주된 동력이 되어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7. 윗글의 언어적 특징 및 표현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양천 탄 왈’이나 ‘대로 왈’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인물의 강렬한 감정 상태를 집약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설의적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인물이 처한 상황에 대한 회의적 태도와 무력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③ 현재형 어미를 사용하여 사건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듯한 현장감을 부여하며 독자의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 ④ 과거와 현재를 빈번하게 교차시키는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인물의 숨겨진 과거사와 범죄 동기를 추적하고 있다.
- ⑤ 청유형 어미를 활용하여 인물 간의 대등한 관계를 설정하고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8. 윗글의 ‘여막’과 ‘산곡’이라는 공간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막’은 반 씨가 자신의 도덕적 순결함을 증명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고행의 공간이다.
- ② ‘산곡’은 반 씨 모자가 사회적 신분을 회복하기 위해 신령의 가르침을 받는 수련의 공간이다.
- ③ ‘여막’은 채 씨 일당의 물리적 위협이 가해지는 장소이자 반 씨 모자가 시련을 겪는 위태로운 공간이다.
- ④ ‘산곡’은 죽은 이의 혼령이 산 사람과 소통하며 가문의 복수를 설계하는 복합적인 공간이다.
- ⑤ ‘여막’과 ‘산곡’은 모두 외부 세계와의 단절을 통해 인물이 자신의 내면적 죄책감을 씻어내는 정화의 공간이다.

**【9~17】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위윤, 위진, 위준 삼 형제는 각각 반 씨, 채 씨, 맹 씨를 아내로 맞이한다. 맏며느리 반 씨는 어질지만, 두 동서는 반 씨를 시기하고 모함한다. 시어머니 양 씨는 반 씨의 진심을 알고, 두 며느리를 꾸짖는다.

채 씨가 분함을 참지 못하여 양 부인에게 하직하고 맹 씨와 더불어 서로 이별할새, 채 씨 왈,

“이제는 그대도 외로운지라. 반 씨의 참소를 어찌 견디리오. 필경은 잔명을 보전치 못할 것이니, 빨리 본부로 돌아가 있음이 가하리로다.”

맹 씨 탄식 대 왈,

“첩도 미상불 그러하올 줄 아오되. 존고께서 아직 있으라 하시니 임의로 못 하거니와, 얼마나 오래 견딜 수 있을까요.”

하고, 서로 눈물을 뿌려 이별하고 돌아가니라.

차설, 채 씨는 본부에 돌아와 부모 슬하에 배알하고 그간 존후를 묻자오니, 부모와 집안 전체가 대경하여 그 연고를 물으니, 채 씨가 눈물을 머금어 양 씨가 반 씨의 참소를 듣고 무죄히 내쳐짐을 이르니, 채영 부부와 부자가 절치부심하여 설분하기를 꾀하더라.

차시에 채 씨의 부친은 좌승상 채영이니, 위엄이 당당하고 권세가 일세에 으뜸일러라. 일찍 아들 일

굽이 있어 다 입조하여 명망이 조야에 진동하고 천자가 승상의 부자를 총애하사 은권이 조정에 따를 이 없더라.

차시에 채 승상이 딸의 말을 듣고 대로 왈,

“내 사람을 살피지 못하여 교양이 없어 말과 행동이 서투르고 무식한 집에 딸을 출가시켰다가 문호에 욕이 미치게 하니 어찌 분한치 아니하리오.”

하고, 이에 천자로 더불어 의논하고 표를 올려 반옥과 위윤의 죄상을 주달하니, 차시 위 시랑이 경사에 와 벼슬에 나아가매 청렴 정직하여 직분을 수행함에 일호라도 구차함이 없으니, 상이 위윤의 재주를 기특히 여기사 벼슬을 돋우어 예부 상서를 시키시니, 위 상서가 천은에 숙사하고 돌아왔으나, 고향 소식을 알지 못하여 아침저녁으로 부모님께 문안드리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더니, 문득 반 씨의 종형 직금량 반희가 궐중에 들어갔다 나오는 길에 위 상서를 보고 예필 후 이르되,

“금일 간에 채영의 아들 채원의 상소를 보니, 형의 허물과 숙부의 죄과를 고달하되, ‘숙부가 병부 상서로 성총을 가리어 상벌이 분명치 못하니, 이는 기군 망상’한 죄인이라. 민심을 산란케 하니, 위윤과 반옥을 함께 참하여 민심을 안정케 하여지이다.’ 하였으니,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일이 있나니이까.”

상서가 양천 탄 왈,

“이는 간인이 있어 모해함이라. 그러나 어찌 기군이라 하는고. 이제 그저 있지 못하리니 궐하에 대죄하리라.”

희 왈, / “들으니 형이 채가와 불화가 있다 하더라.”

하거늘, 상서가 탄식하고 궐하에 나아가니, 반희가 참연하여 하더라.

상이 상소를 보시고 대로 왈,

“짐이 어찌 사람을 그릇 쓰리오. 위윤은 청렴 강직하고 반옥은 충실의 후예라 짐이 수족을 삼았더니, 이제 참언이 여차하니 가장 통해하도다.”

채영이 주 왈,

“위윤과 반옥은 일대 소인이라. 두렵건데 후환이 있을까하나이다.”

제신이 다 채영의 권세를 두려워하여 상고묵묵이라. 상이 위·반 이 인을 아끼시나 조신 중 일인도 변백치 못하는지라, 할 수 없어 위윤은 장사에 원찬하고, 반옥은 강동에 정배하시고 탄식해 마지아니하더라.

(중략)

화설, 채 씨는 흥이 스승을 얻어 글을 배운다 하되, 기이한 선관이 밤마다 임한다 함을 듣고 위진에게 이 말을 일러 왈,

“반 씨가 삼 년이나 나오지 아니함을 괴이히 알았더니, 원래 이같이 음일한 행사가 낭자하니 이제 바빠 처치하소서.”

위진이 대로하여 이날 밤에 창두 이십여 인을 보내어 반 씨 모자를 죽이려 할새, 이에 분부 왈,

“너희는 반 씨의 여막에 가 불을 놓고 반 씨 모자를 불의에 들이치면 마땅히 중상하리라.”

하니, 창두가 저마다 용약하여 일시에 가니라.

차시에 반 씨는 정히 혼미하여 잠깐 졸더니, 비몽사몽간에 일위 부인이 대호 왈,

“미구에 액이 당도하였거늘 무슨 잠을 자느뇨.”

반 씨 놀라 깨달으니 침상일몽이라. 또 들으니 또 이르되,

“어서 피하라. 만일 지체할진대 가히 면치 못하리라.”

반 씨 대경하여 급히 흥을 불러 이 말을 이르니. 흥이 놀라 왈,

“이는 반드시 왕모의 혼령의 가르침이라. 바빠 피하사이다.”

하고, 모친을 불들어 한뼘을 넘어가 부인을 바위 틈에 앉히고 뒤편에 올라 바라보니, 벌써 집에 불이 일어나고 무수한 사람이 두루 다니며 요란하거늘, 급히 돌아와 모친께 고 왈,

“만일 도적 같으면 우리를 찾을 바 없거니와, 우리를 방문하여 찾아보니 매우 의심스러운지라. 이곳에 있지 못할지니 멀리 가사이다.”

하고, 모친을 인도하여 산곡으로 들어가니, 천지가 아득하여 갈 길이 묘연하고 기력이 점점 쇠진하니 모자가 서로 붙들고 통곡하더라.

이때 문득 한 노인이 이르러 문 왈,

“그대는 어떤 사람이관데 적막한 산중에서 이같이 방황하며 슬퍼하느뇨.”

흥이 대 왈, / “깊은 밤에 길을 잃고 정신이 아득하여 우나이다. 원컨대 대인은 길을 인도하소서.”

노인이 웃어 왈, / “공자가 과도히 놀랐도다.”

하고, 인하여 소매 안으로부터 줄 같은 것들을 내어 주며 왈, / “모자가 하나씩 나눠 먹으라.”

하니, 흥의 모자가 받아먹으매 문득 정신이 쇠락한지라. / 정히 사례코자 하더니, 노인 왈,

“나는 이 산을 지키는 신령이더니, 양 부인의 청을 듣고 그대 모자를 구하노라.”

하고 문득 간데없거늘, 흥이 공중을 우러러 무수히 사례하고 모친을 모셔 양강에 이르니. 부인이 통곡하여 왈, / “친정이 비록 서로 허물없이 가깝게 지내나 이 거동으로 어찌 촌중에 들어가리오.”

흥이 위로하며 모셔 외가 반부를 찾아 나아가니, 유 부인이 여아를 보고 크게 반기며 흥이 이같이 장성하여 수미함을 보고 반기는 중, 반 공과 위 상서가 원찬됨이 슬퍼 모녀가 서로 위로하더라.

- 작자 미상, 「반씨전」

**고난도** 9.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가정 소설인 「반씨전」은 「사씨남정기」와 같은 쟁송형 소설과 유사한 서사 구조를 지닌다. 그러나 「사씨남정기」가 처와 첩 사이의 갈등을 다루는 것과 달리, 「반씨전」은 동서 간의 시기와 갈등을 전면에 내세운다. 또한 악인의 악행이 가정 내부에 머물지 않고 외척의 권세와 결합하여 국가의 공권력을 사유화하는 정치적 사건으로 확대된다는 점에서 가문 간 대립의 성격을 강하게 띤다.

- ① 채 씨가 친정으로 돌아가 아버지 채 승상을 통해 반 씨의 남편을 모함하는 것은 가문의 세력을 동원한 정치적 보복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채영이 채원의 상소를 통해 위윤과 반옥을 ‘기군망상’으로 모는 것은 악인이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 상대 가문을 탄압하는 모습이군.
- ③ 제신들이 채영의 위세에 놀려 ‘상고묵묵’하는 모습은 악인의 권세가 국가의 정상적인 의사결정 체계를 마비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군.
- ④ 「사씨남정기」의 처첩 갈등이 가정 내 질서의 붕괴를 보여준다면, 「반씨전」은 동서 간의 알력이 가문 전체의 실존적 위기로 비화되고 있군.
- ⑤ 반 씨가 신령으로부터 음식을 받아 정신을 차리는 것은 「사씨남정기」에서 처가 첩을 용서하고 가정의 평화를 회복하는 방식과 유사하군.

10. 윗글에 사용된 사자성어나 관용적 표현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절치부심’은 자신의 잘못이 드러날까 두려워하는 채 씨 부부의 불안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 ② ‘기군망상’은 위윤과 반옥이 실제로 천자를 속였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며 서사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③ ‘천지가 아득하여 갈 길이 묘연하고’는 반 씨 모자가 처한 절박한 상황을 자연 배경과 연결하여 비극성을 심화하고 있다.
- ④ ‘정신이 쇠락한지라’는 인물이 고난의 상황에서 겪은 피로로 인해 기운이 없고 말라가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보여준다.
- ⑤ ‘수미함’은 위흥의 외양을 묘사하여 그가 장차 부친의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무예를 갖추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11. 윗글의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천자’의 역할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악인의 간사한 꾀를 즉각적으로 간파하여 선인들을 보호하는 절대적인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 ② 선인에 대한 두터운 신뢰를 보이면서도 현실적인 권력 관계에 밀려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 ③ 자신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문 간의 갈등을 조장하여 신하들을 견제하는 냉혹한 정치인의 모습이다.
- ④ 초월적 존재의 계시를 직접 듣고 유배된 인물들을 즉시 소환하여 가정의 평화를 회복시키는 존재자이다.
- ⑤ 채영의 상소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국가의 안위를 위해 선인들을 희생시키는 공리주의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

## 정답 및 해설

### 1. 정답 ③

‘차설’과 ‘차시’라는 고전 소설의 상투적 어휘를 사용하여 채 씨가 본가로 돌아가는 장면이나 채 승상이 상소를 올리는 장면 등으로 화제를 전환하고 있다.

- ① 대화를 통해 사건이 전개되고 있으나, 이는 갈등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며 긴장감을 해소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② 서술자가 사건을 전달하고는 있지만, 서술자가 직접 전면에 나서서 특정 인물의 처지를 한탄하거나 부정함을 비판하는 서술자의 개입은 두드러지지 않는다.
- ④ 공간의 이동은 나타나지만, 이를 통해 대상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는 과정이 구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지는 않다.
- ⑤ 꿈속의 부인이나 신령과 같은 전기적 요소는 인물이 겪는 외적 위기를 극복하게 하는 장치일 뿐, 인물의 내적 갈등을 해소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 2. 정답 ④

천자는 위윤이 청렴 강직하고 반옥이 충실의 후에라며 그들을 신뢰하고 안타까워하고 있을 뿐, 그들의 됃됨이를 의심하고 있지 않다.

- ① 채 씨는 양 부인에게 꾸중을 듣고도 반 씨의 참소 때문이라며 맹 씨에게 말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여준다.
- ② 맹 씨는 채 씨의 말에 동조하여 반 씨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내지만, 시어머니(준고)가 아직 있으라 하니 임의로 떠나지 못한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 ③ 채영은 딸 채 씨의 말을 듣고 위윤과 반옥을 소인이라 모함하며,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그들을 유배 보내는 정치적 보복을 가하고 있다.
- ⑤ 위흥은 꿈의 계시를 왕모의 혼령의 가르침이라 생각하며, 신령의 도움을 받은 뒤에도 공중을 우려 양 부인의 은혜에 사례하고 있다.

### 3. 정답 ④

위진이 창두를 보내 반 씨 모자를 죽이려 하는 것은 채 씨의 거짓말에 속아 반 씨를 음모한 행사를 벌이는 인물로 오해했기 때문이며, 악행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다.

- ① 채 씨가 부친에게 반 씨의 참소로 내쳐졌다고 말하는 장면은 선인을 모해하여 위기에 빠뜨리려는 음모 모티프의 전형적인 양상이다.
- ② 채 씨와 반 씨 사이의 개인적 갈등이 채원의 상소를 통해 조정의 정치적 문제로 비화되는 과정은 가정 소설의 갈등 확대 양상을 잘 보여준다.
- ③ 채영의 위세에 놀려 관리들이 침묵하고 천자가 충신을 유배 보내는 상황은 악인의 권력이 공적 영역을 장악하여 정의가 실현되지 못함을 드러낸다.
- ⑤ 꿈속 부인의 계시는 반 씨의 신앙함과 도덕성이 초월적 세계에서도 인정받아 위기에서 구원받는 정당성을 부여하는 장치이다.

### 4. 정답 ②

[B]의 노인은 당황한 위흥을 ‘과도히 놀랐도다’라며 안심시키고, 신비한 음식을 주어 정신을 쇠락하게 함으로써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 ① [A]의 채 씨는 맹 씨를 걱정하는 척하며 반 씨를 모함하고 있으나, 이를 통해 자신의 복수를 정당화하기보다 상대의 적개심을 부추기는 데 목적이 있다.
- ③ [A]는 반 씨라는 공동의 적을 설정하여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지만, [B]의 노인이 위흥에게 음식을 먹으라고 하는 것은 강압적 명령이 아니라 도움을 주는 행위이다.
- ④ [B]는 위기를 겪고 있는 인물을 구제하는 장면으로, 긴장감을 해소하는 역할을 하며 불행을 예고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 ⑤ [A]는 반 씨의 가공된 행적을 근거로 떠날 것을 종용할 뿐 과거 행적을 비판하지 않으며, [B]는 인물의 놀란 심리를 안정시키려는 것이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 5. 정답 ②

‘줄 같은 것’은 받아먹은 후 정신이 쇠락해졌다는 점에서 심신 회복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적’은 자객의 침입을 막아 인물을 물리적으로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 ① ‘줄 같은 것’은 인물의 기력을 회복시키는 용도일 뿐, 악인의 공격을 되받아치는 방어 도구가 아니다.
- ③ ‘줄 같은 것’은 산신령이 준 것이고 ‘부적’은 양 부인이 도사에게 받은 것이므로, 두 소재 모두 초월적이거나 비일상적인 배경을 지니고 있다.
- ④ ‘줄 같은 것’과 ‘부적’ 모두 인물을 위기에서 구하고 사건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끄는 조력의 소재이다.
- ⑤ 두 소재는 모두 외부의 초월적 힘이 인물을 돕는 도구일 뿐, 인물 자체가 지닌 비범한 능력을 표출하게 만드는 것과는 관련이 없다.

6. **정답** ③

채영과 같은 권세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청렴하고 강직한 위윤과 반목을 모함하고 유배 보내는 과정은 부당한 권력에 의한 선인의 고난을 잘 보여 준다.

- ① **[매력적인 오답]** 양 부인이 반 씨를 편애하는 것에 대한 다른 며느리들의 반감이 존재하고 이러한 고부 갈등이 작품의 뿌리를 이루나, 작품의 중심축을 이루는 갈등은 동서 간의 갈등이므로 적절하지 않다.
- ② 채 씨는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반 씨를 모함하는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개과천선과는 거리가 멀다.
- ④ 갈등의 시작은 동서 간의 시기와 모함이지 재산 다툼이 아니며, 전체 줄거리를 고려할 때 결국 선인은 부귀를 누리게 되므로 가문의 몰락으로 끝나지 않는다.
- ⑤ 이 작품의 갈등은 단순히 여성들 사이의 우월감 충돌에 그치지 않고, 가문 간의 권력 다툼과 정치적 모략으로 확대되어 전개된다.

7. **정답** ①

‘양천 탄 왈’은 하늘을 우러러 탄식한다는 뜻이며 ‘대로 왈’은 크게 화를 내며 말한다는 뜻으로, 인물의 격앙된 심리를 관용적인 문구로 압축하여 전달한다.

- ② **[매력적인 오답]** ‘어찌 분한치 아니하리오’와 같은 설의적 표현이 나타나나, 이는 분노의 강조일 뿐 상황에 대한 회의적 태도나 무력감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 ③ 윗글은 ‘~더라’와 같은 과거형 어미가 주를 이루며 현재형 어미를 통해 현장감을 조성하고 있지 않다.
- ④ 윗글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전개되는 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으며, 역순행적 구성을 통해 과거를 추적하는 방식은 사용되지 않았다.
- ⑤ 채 씨나 맹 씨의 대화에서 제안의 형식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이는 악행을 공모하거나 강요하는 것이지 대등한 관계에서 평화적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8. **정답** ③

‘여막’은 반 씨 모자가 거주하는 곳으로 채 씨가 보낸 창두들이 불을 지르고 공격을 감행하는 직접적인 위기 발생의 장소이다.

- ① 반 씨는 아들의 학업을 돕기 위해 여막에 머물고 있을 뿐 자신의 순결함을 증명하려는 고행의 장소로 선택한 것은 아니다.
- ② ‘산곡’은 도망치던 반 씨 모자가 길을 잃고 헤매다가 신령을 만나 일시적인 도움을 받는 피신처일 뿐 수련을 하는 곳은 아니다.
- ④ ‘산곡’은 신령이 나타나 도움을 주는 공간이지만 이곳에서 가문의 복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는다.
- ⑤ 반 씨 모자는 피해자로서 위기를 겪고 있을 뿐이므로 죄책감을 씻어내는 공간이 아니다.

9. **정답** ⑤

반 씨가 신령의 도움을 받는 것은 천상계의 조력을 통한 위기 극복이며 이는 「사씨남정기」에서 처가 첩을 용서하는 화해의 방식과는 성격이 다르다.

- ① 채 씨가 자신의 부친인 채 승상에게 거짓을 고하여 정치적 권력을 움직이게 하는 것은 가문 세력을 동원한 보복 행위에 해당한다.
- ② 채영이 상소를 통해 공적인 죄명을 씌워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는 공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여 가문 간 대립을 심화시키는 사례이다.
- ③ 조정의 관리들이 채영의 눈치를 보며 침묵하는 상황은 공적인 정의보다 사적인 권세가 우선시되는 비정상적인 국가 상태를 의미한다.
- ④ 동서 간의 시기에서 시작된 갈등이 남편과 친정 오라비의 유배로 이어지는 과정은 가정 내 문제가

가문 전체의 생존 위기로 확대됨을 보여준다.

10. 정답 ③

반 씨 모자가 산중에서 길을 잃고 기력이 다한 상태를 천지가 아득하다는 표현을 통해 나타내어 그들이 처한 위기감을 효과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① ‘질치부심’은 ‘몹시 분하여 이를 갈며 속을 썩임’이라는 뜻으로, 채 씨의 말을 들은 부모와 형제들이 분노하여 복수를 다짐하는 태도를 나타내는 것이지 불안감을 뜻하지 않는다.

② ‘기군망상’은 ‘임금을 속임’이라는 뜻으로, 채영 일파가 위윤과 반옥을 제거하기 위해 억지로 씩은 모함을 의미할 뿐 실제 객관적 증거와는 관련이 없다.

④ [매력적인 오답] ‘쇄락하다’는 ‘기분이나 몸이 시원하고 상쾌하다.’를 의미하므로, ‘정신이 쇠락한지라’는 신령이 준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린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지 기운이 없고 말라가는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다.

⑤ ‘수미함’은 ‘뛰어나게 아름다움.’이라는 뜻으로, 위흥의 빼어난 걸모습을 의미하며 유 부인이 손자를 보고 기뻐하는 맥락에서 사용된 것일 뿐 무예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11. 정답 ②

천자는 위윤과 반옥을 청렴하고 충실하다고 믿으며 안타까워하지만 채영의 위세와 신하들의 침묵에 부딪혀 결국 유배를 결정하는 나약한 모습을 보인다.

① 천자는 채영의 참소가 거짓임을 직감하면서도 이를 바로잡지 못하고 선인들을 유배 보내므로 심판자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

③ 천자는 위윤과 반옥을 아끼고 참언을 통해 그들이 고난을 겪는 것을 통탄해하므로 가문 간 갈등을 조장한다고 볼 수는 없다.

④ 본문에서 천자는 신령이나 꿈의 계시를 직접 듣지 않으며 유배된 인물들을 즉시 소환하는 장면도 지문 상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⑤ [매력적인 오답] 천자는 위윤과 반옥을 아끼면서도 신하 중 아무도 그들을 변호하지 않자 어쩔 수 없이 결정을 내리는 것이지 국가 안위를 위해 의도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은 아니다.